

재보선 이제 그만... 민주 vs 安 신당 격돌

■ 이슈&변수

현 군수 재판 결과 따라 판도 변화 치열한 경선, 후보 합종연횡 주목

회순군수

내년 회순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는 홍이식(55) 군수에 맞서 구복규(48) 전남도위원과 구충곤(53) 전남도립대학장, 류복열(60) 전 광양경찰서장, 배동기(57) 전 화순부군수, 임호경(60) 전 화순군수, 전형준(56) 전 화순군수 등이 거론되며, 벌써부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중 가장 관심사는 전·현직 군수들 간의 대결이다.

홍이식 군수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임에 따라 출마 여부를 재판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호경 전 군수에 이어 전형준 전 군수가 선거전에 가세할 경우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맞붙는다면 지난 2006년 이영남(임호경 전 군수 부인) 대 전형준, 2010년 임호경 대 전완준(전형준 전 군수의 동생)에 이어 세 번째의 '집안 대결'이다.

이 전 군수는 선거로 인해 흐트러진 지역민심을 '결재해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제6대 전남도위원을 거쳐 지난 2002년 민선 3기 군수로 당선됐지만, 취임 직후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돼 낙마한 뒤 잦은 선거로 인한 민심 분열이 있었다고 보고 지역민과 오랫동안 호흡한 만큼 자신이 직접 나서 민심을 한데 모으겠다는 것이다.

임 전 군수는 화순읍과 전대 화순병원을 가로막고 있는 알피산 공원화사업과 화순읍을 관통하는 삼천리 하천들 간의 대결이다.

전·현 군수, 집안대결 재연 예상 '安 신당' 후보 입지자 많아 촉각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지역의 후보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평가이다.

전 전 군수는 홍이식 군수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출마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군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등 안 의원을 도우면서 내년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후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순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이름(나이)	구복규(48)	구충곤(53)	류복열(60)	배동기(57)	임호경(60)	전형준(56)	홍이식(55)
주요경력	전남도의회 의원 전 화순읍장	전남도립대 총장 전 전남도의회 의원	주민중표협 대표 전 광양경찰서장	민주당 화순지역 위원장 전 화순 부군수	민주당화순 상임 부위원장 전 화순군수	정당인 전 화순군수	회순군수 전 전남도의회 의원

* 후보는 가나다순

전 대표와의 친분 등 중앙당 인사들과의 친밀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 총장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전형준 전 군수에게 패배했다. 구 총장은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와 의정활동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배 전 부군수는 화순지역 상가협의회장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을 맡아 그동안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 민심을 다져왔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부와 전남도에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며 얻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중앙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대학강의,

경영마인드를 갖춘 만큼 지식적 기반을 바탕으로 화순군 발전을 꾀하겠다는 포부다.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구복규 전 남도위원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읍면장 등의 공직경험과 지역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각종 행사장을 누비면서 일찌감치 바다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류복열 전 광양경찰서장도 거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회순=조성수기자 css@

전·현 군수, 전 도의장 등 5명 출사표

■ 이슈&변수

갈라진 민심 단독 후보는 누구 지역 관광활성화 주요 쟁점으로

구례군수

구례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일 서기동(64)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는 등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차기 구례군수 선거는 주민소환투표 부결에 따라 3선 도전에 탄력을 받은 서기동 현 군수를 포함해 5명의 후보단이 거론되고 있다.

서 군수는 재임기간 용방농공단지 조성은 물론 특산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산림휴양 단지를 개발하는 등 제조업과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서 군수는 향후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와 남부권 목재 유통센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인환(64)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내년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최근 군수 출마선언을 한 박 전 의장은 갈라진 지역 민심의 화합을

주민소환투표 흥역 조기 과열 조짐 유권자 적어 조직력 승패 좌우할 듯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남 관광 1번지'인 구례군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그는 30여 년 간 민주당을 지켜온 데다 부정·비리에 단 한차례도 연루된 적이 없다는 '청렴'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벌이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6년 간 전·현직 군수의 정치세력의 편 가르기로 인해 민심은 사분오열돼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의 골만 남았다"며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회복을 위해 투명한 군정, 소통의 군정을 통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사계절 관광 구례 조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례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나이)	김종영(56)	박인환(63)	서기동(64)	이동룡(67)	전경태(65)
주요경력	구례군의회 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지도위원회 의장 전 전남도의회 의장	구례군수 전 구례읍장	구례중앙초교 동장회장 전 구례보건의료 원 사업과장	구례발전연구회 고문 전 구례군수

* 후보는 가나다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4, 5기 두 차례 서 군수에 패배한 전경태(65) 전 군수는 그동안 패배 원인 분석과 함께 설움을 버리고 있다.

전 전 군수는 '관광 구례'의 부활을 외치며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재임시절 900만 명의 관광객이 구례를 찾았지만, 서 군수가 군정을 맡으며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관광산업이 퇴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전 군수는 그동안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수 체험대학, 지리산 미니어저 공원 설립과 함께 서울에 구례특산물 직판장 및 구례학숙 신축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동룡(67) 전 구례군 보건의료원 과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뒤 2010년 지방선거는 출마를 포기했다. 하지만,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위해 시장과 마을을 돌며 표심을 다져오고 있다. 이 전 과장은 30년간의 공직생활과 이를 통한 탄탄한 인맥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 전 과장은 '귀농 귀촌' 여건을 조성해 인구를 늘리고, 건강유지 자연 생활 드림펜션 단지 조성, 한방연구

소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김종영 구례군의원도 출마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화합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는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합류 쪽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직사회에 탕평 정진 도입과 스토리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 지역인재발굴 육성 등을 지역 현안과 해결과제로 꼽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전대용봉지구모아APT코너	전대정문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신축 4층 룬 19개 (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룬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정문 룬 18개 월수익 580 매가 7억

수완지구 수익성상가(매매·임대)

수완지구 상가 임대	
★1층 상가매매 17.5평 매가3억5천★ 대방5차 APT 후문 코너	★수완지구 1층 (18평)★ 보3천, 월 130만 (의류, 부동산 네일, 화장품, 적합)
★3차 상가 매매 85평 매가 3억3천★ 모아APT 후문 보증금 3천 월 200만 용 2억5	★3층 상가(62평)★ 보3천, 월 160만 (학원, 병원, 사무실, 매매가능)
★3층 상가매매 62평 매가 2억6천★ 세계로 병원 대로변 보3천 월160만	쌍촌동 원룸 빌라 (APT소형)매매 ▶11평형 매가 3200만 ▶12평형 매가 3300만 ▶15평형(투룸) 매가 4000만

주) 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워케이션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할용지라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금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회원면 조선배후 단지 가능

발,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